IMO 국제해사 정책동향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
MAR. 2019
Vol. 25

발간년월 2019년 3월(통권 제25호) **주소**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**발행인** 양창호 원장
감리 황진회 본부장 **자료문의**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**홈페이지** www.kmi.re.kr

금주 Contents - 해사정책 이슈

IMO, 해사산업 양성 평등을 위한 글로벌 전문 네트워크 구축

IMO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, 여성 지위 향상 등 양성 평등의 중요성 강조 a)b)

■ **IMO는 UN이 선정한 '지속가능발전목표(SDG) 5' 1)에 발맞춰 해사산업 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항만 및 해사교육기관 등에서 여성이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힘**

- 올해 세계 해양의 날(World Oceans Day) 테마는 "해사산업 내 여성 지위 향상(Empowering women in the maritime community)"으로 선정된 바 있음
- 이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IMO는 해사분야의 양성 평등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

역량 개발 및 젠더(gender)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 평등에 대한 제도적 틀 마련 a)

■ **IMO에서는 여성의 지위 및 기여도 향상을 위한 여성 해사 프로그램(Women in Maritime programme)을 시행 중임**

- 해사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, 다만 세계 120만 명의 선원 중 여성이 2% 수준이고, 여성 선원 중 94%는 크루즈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지고 있음
- IMO는 '교육(training) - 가시성(visibility) - 인정(Recognition)'이라는 슬로건 아래,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가시성을 제고하고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인정받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
- 여성 해양 프로그램의 명목으로 시행중인 젠더 프로그램(gender programme)은 1988년 최초 시작되었으며 해사분야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

1) 지속가능발전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, SDG) :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UN 총회에서 채택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 추진 목표

■ 이와 더불어 성별 특화 펠로우쉽(Gender specific fellowship)[2]을 통해 여성들을 후원하고 있음

<표 1> IMO에서 후원중인 펠로우쉽 기관

교육기관	교육과정	주요 내용
갈릴리 국제경영원 (Galilee International Management Institute, GIMI)[3]	Women in Port Management course	- 2018년 10개국의 여성이 펠로우십을 통해 교육을 수료함 - 2019년 처음 GIMI에서 개최된 해상 및 항만 보안 과정에 여성 관료를 후원 - 왕복 항공료, 수업료, 교육비 등 지원 - 홈페이지 : https://www.galilcol.ac.il
항만연구교육기관 (Institut Portuaire d'Enseignement et de Recherche , IPER)[4]	Courses on Women in Port Management	- 매년 개발도상국의 해사 및 항만당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2회의 직무 업그레이드 교육 진행 - 보안, 마케팅, 관세 및 물류뿐만 아니라 선박과 항만의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항만 이슈에 대해 영어 및 불어로 제공 - 그 후 참가자들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Le Havre항과 Rouen항에서 직접 항만 운영을 경험해볼 수 있음 - IMO는 평균적으로 연간 40명의 훈련생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08명의 여성이 이 활동을 통해 훈련 받음 - 홈페이지 : https://www.em-normandie.com
국제항로표지협회 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, IALA)[5]	A to N managers courses	- IALA가 제공하는 관리자코스 1단계(A to N) 과정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함 - 2018년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모로코, 사모아 지역에서 온 4명의 연수생 공동 후원 - 왕복 항공료 및 교육비 등 지급 - 홈페이지 : https://www.iala-aism.org

IMO 후원을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7개의 여성 해사협회(Women in Maritime Association, WIMA)가 설립되었음 a)

■ IMO를 통해 각 지역 네트워크는해사 직업의 날(Maritime career days) 행사, 해변정화 작업, HIV 예방과 같은 성 건강 정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국가별 지부를 설립 운영 중

- 아프리카, 아랍국, 아시아, 카리브해, 라틴 아메리카 및 태평양 지역 약 152개국, 49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구성됨
- 여성 해사협회는 남녀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

2) 성별 특화 펠로우쉽(Gender specific fellowship) : IMO가 개발도상국에서 해사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고도의 기술을 교육시키고, 항만 및 해사교육기관 등에서 여성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후원 제도
3)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이스라엘에 설립된 역량 개발 교육기관
4) 프랑스어권 세계 유일한 해운, 항만 및 물류 분야 전문 역량 교육기관
5) 전 세계 항로 표지의 조화와 향상을 통한 선박안전과 경제적 항해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 간 국제기구

- 이 같은 플랫폼은 해사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직면한 문화적 오명 혹은 제도적 장벽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짐

<표 2> IMO의 후원으로 설립된 여성 해사 협회 위치 및 목록

구분	내용	홈페이지
① Pacific Women in Maritime Association (PacWIMA)	2004년 2월 피지에서 설립하여 2016년 퉁가로 이전 후 조직 개편	http://www.pacwima.org
② Network of Professional Women in the Maritime and Port Sectors for West and Central Africa	2007년 2월 베닌에서 설립하여 2019년 조직 개편	-
③ Association for Women in the Maritime Sector in Eastern and Southern Africa (WOMESA)	2007년 12월 케냐에서 설립	http://womesa.org
④ Women in Maritime Association, Asia (WIMA Asia)	2010년 1월 필리핀에서 설립하여 2015년 조직 개편	https://www.facebook.com/wimaasia
⑤ Women in Maritime Association, Caribbean (WiMAC)	2015년 4월 자메이카에서 설립	http://wimacaribbean.com
⑥ The Arab Association for Women in the Maritime Sector (AWIMA)	2017년 이집트에서 설립	http://www.arabwima.org (Facebook page: https://bit.ly/2U8RHT1)
⑦ Red de Mujeres de Autoridades Marítimas de Latinoamérica (Red-MAMLa)	2017년 12월 칠레에서 설립	-

■ 2019년 4월 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“해사분야 여성들의 격차해소(Empowering Women in Maritime : Bridging the gap)”를 주제로 아시아지역 컨퍼런스 개최 예정

- 이번 컨퍼런스는 양성평등과 고용, 해사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아시아지역의 해운산업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여성들의 일할 권리 등 최근 이슈 및 트렌드에 대해 논의될 계획임

국내 해사산업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 c)

■ 여성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조세 감면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특별 규정 검토 필요

-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으며, 현재 남녀의 임금격차가 높고 경제활동 비율도 남성 79%, 여성 59%에 불과함
- 특히, 해사산업의 경우 남성 중심의 보수적 직장문화와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고, 여성에게 고용의 기회가 많지 않은 문제점을 가짐
- 우리나라도 UN의 ‘지속가능발전목표(SDG) 5’를 반영하여 IMO가 추진하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적극 참여하여 IMO 회원국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함
- 해사산업에서 여성들이 고용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, 더 나아가 여성 인력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

이경미 연구원
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
(kmlee@kmi.re.kr / 051-797-4644)

참고자료
a) http://www.imo.org/en/OurWork/TechnicalCooperation/Pages/WomenInMaritime.aspx(2019.03.12. 검색)
b) https//www.marinelink.com/news/imo-calls-empower-women-maritime-463766(2019.03.13. 검색)
c) 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5168624&plink=ORI&cooper=NAVER(2019.03.13. 검색)